

[2026-005] 즉시 보도	배 포 일	2026.09.14.(월)
	문 의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Tel.02-745-5863 E-mail.assitej@assitejkorea.org
	사진/영상	www.webhard.co.kr (ID assitej1 PW 1004)
	첨 부	①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 철회 촉구 성명서 ②연명 참여자(협회, 개인 및 단체) 명단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4 2층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 www.assitejkorea.org

“ 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예술 창작의 전문성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됩니까? ”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경험, 철학과 비전을 갖춘 인사를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새롭게 선임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1일 어연선 씨를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문 공연의 창작·제작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예술단체이다. 전신인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2011년 출범 이후 약 15년간 연구, 창작, 작품개발, 관객 연구 등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2025년 독립된 별도 극단으로 분리·개편되었다.

■ 극단 출범 이후에도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조속한 선임을 요구해 왔다. 특히 기관의 첫 방향을 결정할 초대 예술감독인 만큼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선임되기를 기대해 왔다.

■ 그러나 이번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공연예술 일반의 경력과 별개로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은 연령별 관객의 특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창작 방식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전문 예술영역이라는 것이 현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초대 예술감독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검증했는지 문체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9월 11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 코리아)를 중심으로 국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 서명에 돌입했다. 9월 13일 오후 6시 집계 기준 8개 협회, 332명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했으며, 관련 협회와 단체, 예술가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 참여 예술인들은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지난 15년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나아가 국가가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을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 예술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연대 활동은 예술계 내부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을 지지하고 함께해 온 관객과 시민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계는 문체부가 이번 임명을 철회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적 비전을 갖춘 인사를 새롭게 선임할 때까지 연대 서명과 시민 호소 등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02-745-5863 (아시테지 코리아)

“참담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예술 창작의 전문성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됩니까?”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 철회 촉구 성명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는,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임명철회를 촉구합니다!

2011년 출범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15년 가까이 어린이·청소년극의 연구와 창작, 작품개발과 관객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현장의 염원 끝에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습한 2026년 9월 11일, 어연선 단장 겸 예술감독의 임명장 수여 기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렵게 쌓아온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그 역사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은 결코 일반 연극의 부속 영역이 아닙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서로 다른 발달과 감각, 정서와 관람환경을 이해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오늘날 이 영역은 연극을 넘어 무용, 인형극, 신체극, 음악,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예술감독에게는 어린이·청소년 관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작 경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적 안목, 그리고 이 분야의 미래를 제시할 철학과 비전이 요구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인사를 공연 연출가이자 예술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광명문화재단 3, 4대 대표이사(‘21~‘25)
- 극단 <현장> 대표(‘05~‘12)

- 세종문화회관 근무(‘12~‘21)
 - 예술단협력팀 부장(‘19~‘21)
 - 돈화문국악당사업TF 팀장(‘17~‘19)
 - 국악단운영팀 팀장(‘16~‘17)
 - 홍보마케팅 팀장(‘15~‘16)
 - 국악사업팀 팀장(‘14~‘15)
 - 공연기획팀 팀장(‘13~‘14)
 - 교육전시팀 팀장(‘12~‘13)
 - 문화예술교육팀 팀장(‘12)

(출처 : 문체부 9.11.보도자료)

- ✓ 위 경력이 진정,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에 적합합니까?
- ✓ 어떤 배경에서 예술감독으로의 적합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경력 어디에서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 전문성은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예술적 전문성을 우선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감독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한 국립예술단체의 미학과 방향을 결정

하고, 작품과 창작자를 선택하며, 그 분야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초대 예술감독이 될 이 자리는 단순한 첫 인사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어떤 예술적 가치와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국내
외에 처음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첫 인사는 국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계에는 앞으로의 기준이 되고,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 ✓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축적은 이번 인사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 ✓ 수십 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 온 현장 예술가들의 경험과 전문
성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은 이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2027년 7월, 대한민국 수원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들이 모이는 아시테
지 세계총회 및 어린이청소년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성취와 전문성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정작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예술감독 선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설명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 ✓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미래에 내놓은 답입니까?

이번 문제는 한 사람의 자질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을 독립적인 전문예술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관
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들을 위한 예술
역시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경험, 철학과 비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예술감독을 선임하십시오.

첫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이후의 방향을 바로잡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전문성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존엄과 전문성을 지켜주십시오.

2026.9.11.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현장 공연예술가 일동

(이하 연명 참여 협회, 단체 및 개인 명단 별첨)

[연명참여자]

■ 협회 8곳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 코리아), (사)한국인형극협회, 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여성연극협회, (사)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한국거리예술협회, (사)한국공연관광협회

■ 개인 200명

강영미(문화예술교육사), 강윤아(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전공, 교수), 강주성(청소년극 극작가), 강혜인, 강창일(예술경영인/전(재)오산문화재단·(재)안산문화재단, 대표), 경지은(배우), 고아라(극단 드라마라운지, 예술교육팀장), 공재민(배우), 광민승(문화예술단체 PERCNET, 부대표), 광예지, 구자람(오마이라이프무브먼트 씨어터, 단원), 권경희(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교장), 김건표(연극평론가), 김나영(극작가), 김다예(문화예술교육사), 김도연(문화예술교육사), 김도윤(극단 여기우리, 단원), 김동영(무대감독), 김동욱(배우, 예술교육가), 김래혁(프리랜서), 김리나, 김미나(문화예술교육사), 김미도(연극평론), 김민형(엠제이플래닛, PD), 김보배, 김석주, 김석홍(아시테지 세계본부 부회장), 김소영(극단하땅세, 소품디자이너), 김수미((사)한국극작가협회 5대 이사장, 극작가), 김숙(효성도서관, 관장), 김승록(개인창작자), 김예빈, 김우욱(2대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김유미(연극평론), 김유인(극단 여기우리, 대표), 김은선(극작가), 김재형(한예중 아청25학번), 김정영(어린이회극, 극작가), 김정우(극단 성시어터라인, 배우), 김정원, 김지영, 김지영(문화예술교육사), 김지옥(극단 북새통, 예술교육 팀장), 김지웅(극단 마루한, 배우), 김진희(극단 북새통, 기획), 김태균(공연예술인노조, 사무국장), 김태완(공상집단 똥단지, 배우), 김현중 (배우), 김현진(극단 드라마라운지, 예술강사), 김형아(이야기꾼의 책공연, 대표), 김혜영(아시테지코리아, 기획), 김희경(극단잇-다, 단원), 김희정(창작하는 타루, 사무국장), 남지수(연극평론가), 노이정(연극평론가), 류혜연(배우), 명진희(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문병재(특치다), 민소정(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 전공), 민윤경, 박서우(이야기꾼의책공연, 배우), 박성준(인천교육연극연구회, 회장), 박소은(극단드라마라운지), 박수아, 박영주((주)너영나영, 예술강사), 박영(프리랜서 어린이청소년극 창작자), 박예지(관객), 박유라(프리랜서), 박이현, 박정아(개인예술가), 박지선(독립 기획자), 박지혜(극단 들락, 동인), 박진희(극단 여기 우리, 배우), 박하늘, 박형욱(이야기꾼의 책공연, 단원), 박혜진(문화예술교육사), 배동석, 배요섭(연출), 백운철, 백지연(사단법인 하늘에, 배우), 변준섭 (퍼포머), 부새롬(극단 달나라동백꽃, 연출), 서문원(영주고등학교, 연극교사), 서선택(이야기꾼의 책공연, 단원), 설용수(극작가),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손호성(무대디자이너), 송김경화(낭만유랑단, 극작·연출), 송주원(안무가, 감독), 신나리(예술강사), 신도현(사단법인 하늘에, 스태프), 신동준(극단 공상집단똥단지, 배우), 신문영(우주마인드프로젝트, 창작자), 신승현(사단법인 하늘에, 배우), 심경숙(화이트캣 컴퍼니, PD), 심상학(인디어니언, 연출), 심소담(문화예술교육사), 심영민(연출·배우), 안예슬(배우), 안혜경, 양진규(드라마 리더), 오경미 (사단법인 하늘에, 스태프), 오수정(수원문화재단, 부장), 오신환(아시테지 코리아, 개인회원), 오유민(극단 오렌지아트컴퍼니, 단원), 오준석(엠제이플래닛, 대표), 우아현(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 전공), 유나령(배우), 유별라(극단 금설복합예술소, 배우), 유진규(마임이스트), 유한수(극단 문, 기획실장), 윤소희, 윤시중(하땅세, 연출), 윤희철(영희)(극단 연극문화공동체DIC, 배우), 이다연(극단 여기 우리, 단원), 이도연(독립기획자), 이미라(랄랄라), 이민구(연출), 이병훈(연출), 이보람(프리랜서), 이선실(어린이문화연대, 회원), 이선아, 이성직, 이소연(문화예술교육사), 이솔(문화예술교육사), 이연주, 이영례(오!마이라이프무브먼트씨어터, 단원), 이원정(극단 교육극단안, 단원), 이유라(공이모), 이유진, 이은조(배우), 이은주(문화예술교육사), 이인석(공상집단 똥단지, 배우), 이정수(극단 H작업실, 연출), 이지혜, 이진아(연극평론가), 이향은(개인), 이현주(극단 로.기.나래, 단원), 인정주(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예술감독), 임가람(배우), 임성훈, 임세준(극단 해피준ent), 임휘진(배우), 장유정(극단 하땅세), 장윤경(문화예술교육사), 장윤정(연극평론가), 장항석(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연출), 장형선(아트 컴퍼니 노닐다, PD), 전경미, 전상배(극단 하땅세, 배우), 전소현(지공연협동조합, 배우), 전주연(문화예술교육사), 전현아(극단그루, 배우), 전홍비(문화예술강사), 정다경(문화예술교육사), 정다정(창작공동체 아르케, 배우), 정문희(교육극단파랑새, 연출), 정문희(연극문화공동체 DIC, 단원), 정수진, 정승진(어린이청소년극 극작가), 정윤희(문화예술교육사), 정재현

(사단법인 하늘에, 이사), 정창석(한국연극협회, 이사), 정하진(극단 자유마당, 부대표), 정효원(문화예술교육사), 제상아(극단벽수골, 기획사무국장), 조유리, 조경향(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조민수(문화예술교육사), 조서연, 조승혜(팀 티티새), 조영환(사단법인 하늘에, 연출), 조인해(개인, 관객), 주하영(슬로우로우, 슬로우로우키즈 물입움직임연구가), 진유라(컬처루트, 기획), 진윤철(화이트캣시어터 컴퍼니), 차다영(관객), 최선영, 최소영(문화예술교육사), 최승연(뮤지컬 평론가), 최승은(배우), 최종율(화이트캣시어터 컴퍼니), 최지영(아시테지 저널, 편집장), 최지원(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전공), 최진호(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연극연구회), 최현정(연극예술강사), 편윤아(문화예술교육사), 폴매튜스(극단 잼박스, 배우), 한기윤(극단 공상집단 똥단지, 단원), 한송희(창작하는 타루, 기획), 한주연(개인 창작자), 한채경(문화예술교육사), 한혜민(작은극장H, 대표), 허영선(화이트캣시어터 컴퍼니), 홍서아(개인), 홍예지, 홍윤경(극단 여기,우리, 단원), 황덕신(이야기꾼의 책공연, PD), 황하영(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전공, 교수), 황호규(극단 해의 아이들, PD)

■단체 132개

강경호(플레이슈터, 대표), 강선숙(한국여성연극협회, 이사장), 강용복(극단 논다, 대표), 강제권(창작집단곰, 대표), 강지수(극단몸짓굿, 대표), 고능석((사)극단 현장, 대표), 권연순(K아트플래닛, 대표), 기태인(극단 나무, 대표), 김하은(극창작소 별별생각, 대표), 김경숙(어처구니 프로젝트, 대표), 김기령(극단 고고씨어터, 대표), 김기태(극단 조이키즈, 대표), 김다영(올빠프로젝트, 대표), 김도란(문화예술곰테 뽕, 대표), 김도형(서울연극협회, 회장, 극단 시절인연프로젝트 대표), 김미정(극단구리거울, 대표), 김민경(극단 아옴, 대표), 김병호(11대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극단 즐거운 사람들, 대표), 김봉석(마네트, 대표), 김상화(교육영화제, 이사장), 김성두(극단한솔, 대표), 김소리(창작놀이터 사이에서, 대표), 김승연(우주마인드프로젝트, 대표), 김영배(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영현(극단 북극곰예술여행, 대표), 김유인(극단 여기,우리, 대표), 김은균(함께걷는사람들, 대표), 김은미(극단상상이상, 대표), 김은진(극단 꿈트리, 대표), 김장미(아주작은연극놀이터, 대표), 김정만(전국어린이연극잔치, 운영위원장), 김정훈(강원연극협회, 회장), 김태윤(극단 MOI, 대표), 김현기(창작집단우주도깨비, 대표), 김현예(극단 성시어터라인, 대표), 김형아(이야기꾼의 책공연, 대표), 나숙경(사단법인 하늘에, 대표), 남인우(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도기륜(극단 놀이터, 대표), 도희경(아트 컴퍼니 노닐다, 대표), 문삼화(어처구니 프로젝트, 상임연출), 문숙경(극단하땅세, 대표), 문재현(인형극단아토, 대표), 민광숙(공연예술창작소 호밀, 대표), 박근화(예술공동체단디, 대표), 박대현(극단 달그락, 대표), 박영희(극단 문, 대표), 박용진(극단레오레미, 대표), 박장렬(연극집단반, 연출), 박정용(창작집단 탈무드, 대표), 박정은(예술연구소 놀이하는 마음, 대표), 박종우(극단 청창, 대표), 박주영(영유아연극단체 스타뚜잉, 대표), 박지연(극단 아츠플레이본, 대표), 박혜선(극단 사개탐사, 대표), 밝닝쿨(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대표), 배근영(극단로.기.나래, 대표), 배혜진(나뭇잎배, 대표), 변종수(극단 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부세롬(극단 달나라동백꽃, 연출), 선옥현(극단 밥통, 대표), 성경철(극단 무릎배개, 대표), 성지수(컬렉티브 똥굴, 대표), 손정우(극단 유목민, 대표), 손지안(창작집단 연, 대표), 송은경(금설복합예술소, 대표), 송인현(10대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극단 민들레, 예술감독), 송해담(청소년극 게릴라단 쾌청, 대표), 신동우(사단법인 공연제작 액터스토리, 대표), 신인선(인형극연구소 인스, 대표), 신지은(문화예술교육사 씨앗예술연구소, 대표), 신철연(교육극단 흐름새, 대표), 안균민(극단 들락, 대표), 안희철(초이스시어터, 대표), 양지모(극단 도움닫기, 대표), 양혜정(예술교육센터 마주, 대표), 오세곤(극단 노을, 예술감독), 오준석(엠제이플래닛, 대표), 위기훈(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극작가), 유정민(해의 아이들, 대표), 유홍영(극단 사다리, 대표), 윤서비(스튜디오 열혈, 대표), 이국희(아시테지 대구지회 회장, 극단 온누리, 대표), 이기쁨(창작집단 LAS, 대표), 이래은(달과아이, 연출), 이선미((유)편스토리, 대표), 이소선(이야기공방 마음담기, 대표), 이소희(극단 드라마라운지 대표), 이숙자(민들레인형극단, 대표), 이승규(크리에이티브아트 대표), 이신호(에임 아츠앤컬처, 대표), 이용희(교육극단 나무테랑, 대표), 이재은(에어리 무브먼트 대표, 홀딩턴 대표),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공동대표), 이지민(비영역공작단, 대표), 이지은(교육극단안, 대표), 이진아(극단진아언니, 대표), 이진영(극단 찰리, 대표), 이진혁(창작콘텐츠연구소, 대표), 이철성(체험예술공간 꽃밭, 대표), 이태린(예술창작공장콤마앤드, 대표), 이현지(플러그드, 대표), 이훈경(극단 제자백가, 대표), 인경훈(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 임홍석(광주연극협회 회장, (주)교육극단 파랑새,

대표), 장성은(문화예술기획면면, 대표), 장하람(홀 댄스 컴퍼니, 대표), 전영준(극단21, 대표), 전효정(예술꿈학교, 대표), 정가람(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 상임극작가), 정안나(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정영민(극단 민, 대표), 정유란((주)문화아이콘, 대표), 정종임(창작하는타루, 대표), 정진영(창작집단 정의진, 대표), 조은아((주)문화공, 대표), 주승민(극단 오픈런씨어터, 대표), 채윤(창작집단 삼삼33, 대표), 채정규(화이트캣씨어터컴퍼니, 대표), 최성우(충북연극협회, 회장), 최여림(극단 두번째방법, 대표), 최은영(온고잉아트랩, 대표), 한윤미(바람컴퍼니, 공동대표), 한지혜(극단코랄씨어터, 대표), 한지혜(창작집단인사리, 대표), 한혜민(작은극장H, 대표), 한혜수(극단 화성에서본지구, 대표), 함형식(극단 소금창고, 상임연출), 홍성연(창작꿈터 놀이공장, 대표), 홍윤진(루트머지㈜, 대표), 황태선(창작집단 지오, 대표)